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⑦

규 원 사 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공자의 시대에 주(周) 왕실이 이미 쇠퇴하여 바깥 민족들이 번갈아 침범하니 여왕(王)이 견융(犬戎)에게 패하여 죽게 되었고, 그 밖에 북융(北戎)이며 형만(荊蠻)과 산융(山戎) 등 끊임없는 무리들이 침략하여 핍박하길 마지않았으며, 우리민족 또한 이때에 위엄을 중토에 떨쳤었다. 때문에 공자가 왕의 다스림이 널리 미치지 못함을 개탄하고 여러 나라가 번갈아 침범함을 한탄하며 뜻이 있어서 <춘추>를 지었기에, 중화를 받들고 오랑캐를 내친다는 말이 이때 비로소 쓰여지게 되었다.

만약 공자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오히려 중토를 가리켜 오랑캐의 땅이라고 어찌 말하지 않았겠는가] 하니, 모든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혹은 놀랍게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적지 않게는 사뭇 수긍하는 자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모두 쾌히 응하지 않기에 내가 상을 박차고 일어나니 사람들이 모두 광기가 매우 심하다고 말하였다. 탄식할 노릇이다.

예전에 만주에 허물이 있다 하여 조정에서 화친이니 배척이니 하며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이 또한 주나라 왕실을 높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이기에 나는 그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 만일 내가 또 다시 동년배들에게 이 말을 끄집어낸다면 그네들은 응당 크게 놀라긴 하여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아마도 장차 친구로 끼워 주지도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어찌 저들의 말만을 이상하다 하겠는가.

기자(箕子)가 교화를 베풀었다는 것은 믿으면서, 한무제가 조선을 쳐서 멸망시켰다는 것은 믿으면서, 당고종이 고구려를 평정하였다는 것은 믿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선조들에게 충분히 자부할 만한 빛나는 무훈이 있었음은 왜 알지 못하는가. 내가 슬퍼하는 것은, 세속의 인식이 제멋대로 변한 점은 살피지 않고, 중니가 높이고 깎아 내린 것만을 가지고 스스로를 그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夫神市肇降之世, 山無蹊隧, 澤無舟梁, 禽獸成, 草木遂長, 民與禽獸居, 族與萬物幷, 禽獸可係 而(遊)[游], 鳥鵲之巢可攀援而 ; 飢食渴飮, 時用其血肉, 織衣耕食, 隨便自在, 是謂至德之世也. 民居不知所爲, 行不知所之, 其行塡塡, 其視顚顚, 含哺而熙, 鼓腹而(遊)[游], 日出而起, 日入而息, 盖天澤洽化, 而不知窘乏者也. 降至後世, 民物益繁, 素樸漸離, 勞勞孜孜, 始以生計爲慮. 於是焉, 耕者爭畝, 漁者爭區, 非爭而得之, 則將不免窘乏矣. 如是而後, 弓弩作而鳥獸遁, (網)[網] 設而魚鼈藏, 乃至刀戟甲兵, 爾我相攻, 磨牙流血, 肝腦塗地, 此亦天意之固然而不可怨者也. 余嘗觀, 夫小兒 [出胎門, 便救我救我者, 盖求其哺也;]至行走, 便會打打者, 欲其求强也, 余於是乎知, 爭戰之不可免也.

무릇 신시씨가 처음 내려온 세상은, 산에는 길이나 굴이 없었고 못에는 배나 다리가 없었으며, 날짐승과 들짐승은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풀과 나무는 무성히 자라났다. 백성들은 금수와 함께 거처하며 만물과 더불어 어울리니, 금수는 굴레를 매어 같이 노닐 수 있었고 새나 까치의 보금자리는 기어올라가 엿볼 수 있었다. 주리면 먹고 목마르면 마심에 때때로 그 피와 고기로 하였으며, 옷감을 짜서 옷을 해 입고 밭을 갈아 음식을 먹으며 편함에 따라 있는 그대로 지내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덕이 가득한 세상이다.

백성들은 살아가면서도 그 행하는 바를 느끼지 못하였고 나아가면서도 그 가는 곳을 의식하지 않았으니, 그 행위는 당당하고 그 시야는 한결 같았다. 배불리 먹고 기뻐하며 배를 두드리고 노닐며,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니, 대저 하늘의 은혜가 널리 미쳐 궁핍함을 알지 못한 것이리라.

후세에 내려와 백성과 사물이 더욱 번창해지며 소박함에서 점차 멀어지고, 아등바등 힘쓰며 쉬지 않고 노력하게 되니 비로소 생계를 근심거리로 삼게 되었다. 밭을 가는 자는 이랑을 놓고 다투고, 고기를 잡는 자는 구역을 놓고 다투는데, 다투어 얻지 못하면 장차 궁핍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된 후에 활이며 쇠뇌를 만드니 날짐승과 들짐승은 달아나 버렸고, 그물을 만들어 설치하니 물고기와 새우들은 숨어 버렸다.

이에 칼과 창이며 갑옷과 병사가 생기고 너와 내가 서로 공격하여 이를 갈고 피를 흘리며 간과 뇌를 꺼내어 땅에 바르니,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라면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보건대 어린아이가 막 태문(胎門)을 나서면서 곧 '응애(救我)'! '응애(救我)'! 라고 부르짖는 것은 대개 음식을 구하는 것이며, 막 걷게 되어 곧 서로 토닥거리며 '쎄다(打)'! '쎄다(打)'! 할 줄 아는 것은 강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내가 이로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면하기 어려운 것인 줄 알게 되었다.

夫月氏 大秦之屬, 余不知其詳, 至若中國與倭, 接隣之國也, 翼在左右而我國介處其間, 從古交爭最繁, 是亦必然之勢也. 神市氏(之御世)[御世之]已遠, 而民物之生愈往愈博. 民物之生愈博而, 所以彼服 飮食 奉生 送死之具, 愈見其耗. 是以始之熙熙者, 漸至忙忙, 夫忙忙求索者, 豈非爭亂之階)[階]歟. 及夫有巢 燧人者, 西方之君也, 神市 蚩尤者, 東方之君臣也. 御世之初, 各據一方, 地域迥殊, 人烟不通, 民知有我而不識有他, 故狩獵採伐之外, 曾無險役.

무릇 월씨나 대진의 무리에 대해서 내가 그 상세한 바를 알지 못하나, 한(漢)나라와 왜(倭) 같은 것은 인접한 나라로서 날개와 같이 좌우에 있고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에 끼여 있어서 예로부터 갈마들어 다툼이 가장 빈번하였으니, 이는 필연적인 형세이다. 신시씨가 세상을 다스린 지 이미 오래되니 백성과 사물이 번성하여 가면 갈수록 넓게 퍼졌다. 백성과 사물이 번성하여 넓게 퍼질수록 덮고 입으며 마시고 먹는 일과 생전에 봉양하고 죽은 후에 장사지내는 일 등에서 모두 그 소비가 눈에 뛰게 늘었다.

이로서 처음에는 화락하기만 하다가 점차 다급하게 되어 가니, 무릇 다급하게 무엇을 구하고 찾다 보면 다투고 싸우는 순서를 어찌 밟지 않겠는가. 대저 유소씨나 수인씨는 서방의 임금이요, 신시씨와 치우씨는 동방의 임금과 신하이다. 세상을 다스리던 초기에는 각각 한쪽에 웅거하고 있었는데, 땅의 구역이 사뭇 다르고 인가(人家)는 서로 통하지 않았으니 백성들은 자기들만 있는 줄 알고 다른이들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까닭에 수렵하고 채벌하는 일 외에는 별다른 힘든 일이 없었다.

降至數千載之後, 而世局已變, 且中國者, 天下之寶庫也, 沃野千里, 風氣恢暢. 我族之分遷西南者, 垂涎而轉進, 中土之民, 亦湊集而萃會, 於是焉, 黨同 異而干戈胥動, 此實萬古爭戰之始也. 初炎帝之世, 中土之漸民至盛阜, 穀 麻 藥 石之術, 亦已稍備. 及累傳至於檢罔之世, 而爲政束急, 諸侯携貳, 民心離散, 世道多艱. 我蚩尤氏與其民衆, 虎踞河朔, 內養兵勇, 外觀時變, 及觀檢罔之衰政, 乃興兵出征; 選兄弟宗黨可將者八十一人, 部領諸軍, 發葛盧山名之金, 大制劒 鎧 矛戟大弓矢, 一幷齊整, 乃發 鹿而登九渾, 連戰連捷, 勢若風雨, (仗)[伏]萬民, 威振天下. 一歲之中, 凡拔九諸侯之地. 更就雍狐之山, 發水金而制芮 戈及雍狐之[戟, 再整兵而出洋水, 殺至空桑. 空桑者, 今之]陳留, 檢罔所都也. 一歲之中, 更兼十二諸侯之國, 殺得(仗)[ ]伏尸滿野, 中土之民, 莫不喪膽奔竄. 時檢罔使少顥拒戰, 蚩尤氏揮雍狐之戟, 大戰少顥, 又作大霧, 使敵兵昏迷自亂, 少顥大敗, 落荒而走入空桑, 與檢罔出奔反入鹿. 蚩尤氏乃於空桑卽帝位, 回兵圍攻於 鹿之野, 又大破之. 《管子》所謂[天下之君, 頓戟一怒, (仗)[ ]伏尸滿野.]者, 是也.

수천 년을 내려온 뒤 세상의 형세는 이미 변화하였으며, 또한 중국은 천하의 보고(寶庫)로서 기름진 벌판이 천리에 뻗어 있어 바람은 널리 퍼지고 기온은 화창하니 우리 민족 가운데 서남쪽으로 나누어 옮겨간 자들은 대단히 탐을 내어 더욱더 나아갔으며, 중토의 백성들 역시 꾸역꾸역 모여들게 되었다. 이리하여 자기편끼리는 도와서 무리를 이루고 다른 편은 그저 원수로 삼아 창과 방패로 서로 충동질을 하니, 이것이 바로 만고에 있어서 전쟁의 시작이다.

처음 염제(炎帝)의 세대에 중토는 점차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졌으며 곡식을 일구고 삼베를 자으며 약과 침을 쓰는 기술 또한 점차 갖추어져 갔다. 이로서 여러 세대를 전하여 유망(檢罔)에 이르니, 정치에 있어서는 단속하기 급급하고 제후들은 두 마음을 지녔으며 민심은 흩어져 세상의 도는 어렵기만 하였다.

우리 치우씨는 백성의 무리와 함께 황하의 이북 땅에 할거하고 앉아서 안으로 용맹스러운 병사를 기르고 밖으로 시대의 변화를 지켜보다가 유망의 정치가 쇠잔하였음을 보고 이내 병사를 일으켜 출정하였다. 형제와 종실의 무리 가운데 장군으로 삼을 만한 사람 81명을 선발하여 부장(部將)으로써 모든 군사를 통솔케하고, 갈로산(葛盧山)의 쇠를 캐내어 칼이며 갑옷과 창과 갸닥창을 비롯하여 큰 활과 호목나무 화살 등을 많이 만들어 모두 가지런히 하고는 탁록(鹿)으로 출발하여 구혼(九渾)에 올라 연전연승하니, 그 형세가 마치 비바람과 같아서 세상의 만민은 두려워 엎드리고 그 위세는 천하에 떨치게 되었다. 한 해 만에 무릇 아홉 제후의 땅을 빼앗고, 다시 응호산(雍狐山)에 나아가 수금(水金)을 캐어 끈 달린 방패와 가지창 및 응호창을 제작하여, 새로 병사를 정비하고 양수(洋水)를 떠나 파죽지세로 공상(空桑)에 이르렀다.

공상은 지금의 진류(陳留)로서 유망이 도읍하던 곳이다. 한 해 만에 다시 열두 제후의 나라를 합치니, 죽어 엎어진 시체는 들녘에 가득하기에 중토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하여 달아나 숨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때에 유망이 소호(少顥)로 하여금 막아 싸우게 하니, 치우씨는 응호창을 휘두르며 소호와 크게 싸우면서 또한 큰 안개를 일으켜 적병으로 하여금 혼미한 가운데 스스로 혼란케함에 소호는 크게 패하고 황망히 물러나 공상으로 들어가더니 유망과 함께 도망 나와서 되돌아 탁록으로 들어갔다. 치우씨는 이에 공상에서 제위에 오르고 병사를 되돌려 탁록의 들판을 에워싸고 공격하여 또 크게 패퇴시켰다. 《관자(管子)》에 이른바 [천하의 임금이 창을 들고 한번 크게 노하니 엎어진 시체는 들판에 가득하였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다음호에 계속)

본원 상임고문이신

江星 權文洙 선생을 애도함

근래에 작고하신 본원 상임고문 강성 권문수(江星 權文洙)선생께서는 남달리 숭조애족심(崇祖愛族心)이 많으셨다. 누구인들 이런 마음이 없으리오마는 유달리 30여년동안 끊임없이 우리 권씨문중의 발전을 위해 화산회(花山會)를 조직하여 중앙종친회를 도와왔으며 조상의 위토를 늘리기 위하여 국내는 물론 멀리 일본의 관서종친회(關西宗親會)까지 왕래하며 모금을 많이 하여 김포들에 제전(祭田)을 마련하였고, 아시조(亞始祖)이신 낭중공(郎中公)의 청도단소(淸道壇所)를 보위하다가 안동능동(安東陵洞)으로 옮겨 설단하는 데도 성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파조복야공(派祖僕射公)의 설단 때는 추진위원장을 맡으셔서 필자(筆者:당시 추진위원회상임부회장)와 함께 수없이 안동현장에 오르내리면서 큰 역사를 완성시켰다.

본인이 여기에 짧은 글로 다시 쓰는 것은 의(義)로운 일은 서로가 알고 가야되기 때문이며 광주(廣州)에 선생께서 생전에 마련해 놓은 가묘(假墓) 옆에 세운 공덕비(功德碑)가 말해주고 있다.

이에 가신 님을 위하여 읊은 만사 1편을 여기에 옮겨 적는다.

謹輓 江星權文洙常任顧問 삼가 강성 권문수 고문을 애도함

江星一夜落荒堆(강성일야낙황퇴) 강별이 하루저녁에 황퇴에 떨어지니
遠近宗人總痛哀(원근종인총통애) 원근의 일가분들이 모두 슬퍼하였네
結社華山門勢擴(결산화산문세확) 화산회를 결성하여 문세를 확장했고
募金韓日祭田培(모금한일제전배) 한일에서 모금하여 위토를 늘리었네
郎中保所盡誠售(낭중보소진성수) 낭중공 단소보위에 정성을 다해 보답했고
僕射造壇專力陪(복야조단전력비) 복야공의 설단에 전력으로 도왔도다
公逝松坡無長老(공서송파무장노) 공께서 떠나신 송파에는 장로가 안계시니
西天片月照空臺(서천편월조공대) 서쪽하늘의 조각달이 빈집을 비춰주네

癸巳 1월1일 族從 權洪燮 謹追輓

미래를 준비한 북위(北魏)의 탁발규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전진왕 부견이 동진을 공격하다 실패한 다음에 그가 통일하였던 북조에는 여러 종족들이 우후죽순처럼 각기 나라를 세웠다. 전진에서 독립한 선비족(鮮卑族) 모용수(慕容垂)는 후연(後燕)을 세웠고, 강족(羌族) 요장(姚萇)은 후진(後秦)을 세웠다. 그뿐이 아니었다. 또 다른 선비족인 걸복국인(乞伏國仁)은 서진(西秦)을 세웠고, 부견과 같은 저족(氐族) 여광(呂光)은 후량(後凉)을 세웠으며 또 다른 선비족인 모용홍(慕容泓)은 서연(西燕)을 세웠다.

이때에 이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였지만 또 다른 선비족인 탁발규(拓跋珪)가 북위(北魏)를 세운다. 그러니까 부견이 동진정벌을 실패한 뒤에 몇 년 사이에 북조(北朝)에는 7개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선비족이 세운 나라는 후연과 서진, 서연, 북위까지 네 개의 나라나 되었다. 같은 선비족도 지파별로 나라를 세운 것이다.

그런데 후에 다시 북조를 통일하는 나라가 탁발규가 세운 북위이다. 그러나 탁발규가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에는 이미 망한 연(燕)을 부흥시킨 모용수의 후연이 가장 강하였다. 그러나 새로 위(魏, 북위)를 세운 탁발규는 늦게 출발하였지만 후연을 도모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후연과 친선관계를 유지하여야 했다.

위왕(魏王) 탁발규는 후연의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자기의 4촌 동생인 탁발의(拓拔儀)에게 후연에 사신(使臣)으로 가라고 하였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명을 받은 탁발의는 사신이 되어 후연의 중산(中山)땅에 이르렀다.

힘이 강한 후연의 모용수는 위왕 탁발규가 직접 오지 않은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탁발의에게 따져서 물었다. '어찌하여 위왕이 손수 오지 않았느냐?'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오만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탁발의는 과거의 일을 꺼내어 후연과 북위가 상하관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당당하게 말하였다.

'먼저 돌아가신 왕께서는 연과 더불어 나란히 진(晉)왕실을 섬기면서 대대로 형제로 지냈으니 신(臣)이 지금 사신으로 온 것은 이치로 보아서 아직 실수한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는 모두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데, 그들의 조상인 탁발역미(拓拔力微)와 후연의 선조인 모용섭귀(慕容涉歸)가 함께 서진(西晉)지역으로 내려와서 서진에서 벼슬한 일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모용수는 과거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국력이 달라졌으니 같은 처지가 아니라고 말하였지만 탁발의는 대답하였다. '연(燕)이 만약에 덕성(德性)과 예의를 닦지 않고 군대의 위세(威勢)로 스스로 강성해지고자 한다면 이는 바로 장수가 할 일일 뿐이니 신에게 알게 할 바가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한다면 싸워보지 않고는 모를 일이니 여기 앉아서 말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후연을 방문하고 온 탁발의는 후연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현제 연의 주군인 모용수는 늙어서 쇠약하다. 그의 동생인 범양왕(范陽王) 모용덕(慕容德)은 모용수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조카인 현재 태자에게 신하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차 후연에는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자고 하였다.

과거와 현재를 알면 미래가 보이는 법이다. 탁발의는 단 한번 후연을 방문하고서 후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과 북위로써 이에 대비할 일을 꿰뚫어 알았다. 10년은 고사하고 5년의 앞일조차 관심 없이 당장의 코앞에 일만을 생각하는 요즈음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권용일(부총재)	100만원
△권무탁(부총재)	100만원
△권영성(부총재)	100만원
△권오수(부총재)	100만원
△권계동(상임부총재)	100만원
△권영익(부총재)	50만원
△권혁춘(부총재)	20만원
△권인탑(부총재)	20만원

소 계 59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행일(대구)	20만원
△권희철(대전)	10만원

소 계 30만원

▣ 대의원회비

△권혁정(대구)	10만원
△권오교(대구)	10만원
△권찬섭(안동)	10만원
△권오영(원주)	10만원
△권병기(의령)	10만원
△권돈원(대전)	10만원
△권오섭(영주)	10만원
△권학중(안동)	10만원
△권중학(안동)	10만원
△권태룡(울산)	10만원
△권동일(안동)	10만원
△권오정(예천)	10만원
△권혁용(정릉)	10만원
△권영일(경산)	10만원
△권정휘(영주)	10만원
△권영숭(영덕)	10만원
△권영순(용인)	10만원
△권종호(대전)	10만원
	(2012. 2. 29일 입금)
△권태경(강릉)	10만원
	(2012.10. 25일 입급)

소 계 190만원

합 계 810만원

稅務士 權 九 文 事務所

■ 양도, 상속, 증여세 상담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개인, 법인의 기장, 고문
■ 기타 세무상담 일체환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3-14 보보스텔 208호
TEL:2066-9741~4 / H.P : 011-307-2443 FAX : 2066-9745

마포종친회 1월 월례회 신년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1월 월례회(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1월 24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렁탕) : 02)702-5047, 010-5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⑤번출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⑥번출구→ 공덕오거리→르네상스타워(옆)→공덕지구대(파출소)뒤 →우가촌(설렁탕)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 02)718-8437, 017-271-8437
■ 총 무 권일부 : 02)714-4500, 010-3796-6980

2013년 1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

행복한 결혼을 찾아주는

하 나 결 혼 정 보

소장 권 경 분

권문(權門)의 자녀 결혼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성심성의껏 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타 A동 1706호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①번 출구)

○ 상담전화 : (02)501-1177
○ FAX : (02)508-5285
○ H·P : 010-3203-3555
○ 자택 : (031)794-0980
○ E-mail : hm1003@hanmail.net